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Publication of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mgan Byeonpalok* and *Muninlok*

권 석 창 (Kwon, Seok-Chang)*

◁ 목 차 ▷

1. 緒 論	4.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2. 『佔畢齋集』의 諸板本	刊行 이후의 狀況
3.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과 『門人錄』의 刊行	5. 結 論
	<참고문헌>

< 초 록 >

변과록(辨破錄)은 어떠한 문헌이 편찬되었을 때,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해 반(反)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문헌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으로, 변무록(辨誣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서적의 간행과 연관된 변무록 류의 서적 가운데 『점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이하 『첨간변과록(添刊辨破錄)』)을 통해 『점필재집(佔畢齋集)』의 「문인록(門人錄)」 간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인 『점필재집』의 여러 판본을 살펴보고, 특히 『점필재집』에 문인록이 수록되는 기유본(己酉本) 이후에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기사본(己巳本)의 간행의 특이점이 대개 『점필재집』 「문인록」에 새로운 문인을 첨가해 넣는 것과 관계있음을 살펴보았다.

『첨간변과록』은 1869년에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본손인 김식(金植)이 『점필재집』을 간행하던 과정에서 팔가구현(八家九賢)의 문도를 새로이 첨입하여 간행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과할 때, 그 전말에 관계되는 통문(通文), 서찰(書札) 그 밖의 여러 공문(公文)을 수록하여 1875년에 한훤당(寒暄堂) 김평필(金宏弼)의 14대손인 김취동(金聚東) 등이 편찬한 책이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변과록 서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형식인 축조변과(逐條辨破)로 이뤄졌음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변과사건의 결과로 점필재 집안에서 문집(文集)을 새로 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된다.

또 그 과정을 수록한 『첨간변과록』과 함께 『점필재선생문인록』도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수록 문인과 여러 판본의 『점필재집』에 수록된 「문인록」을 대조하여, 처음 「문인록」을 수록하여 간행한 기유본에 49인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박재공(璞齋公)이 작성한 정본(定本)에는 50인이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첨간변과록』의 간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임진본(壬辰本)의 간행과 연관하여 살펴보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wordmaker@naver.com)
접수일: 2014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다. 기존에 알려진 간행사유에 대해, 『첨간변과록』도 그 간행 사유 중 하나로 추정하여 살펴본 있는데, 이는 연보와 부록의 편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인록은 김뉴(金紐)의 정본을 중심으로 문집류와 변과록류의 2가지 계열로 나타나는데, 이는 문도 첨간에 대한 다름이 『문인록』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要語: 『佔畢齋集』,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佔畢齋先生門人錄』, 김종직, 변과록, 변무록, 김식, 김취동

<ABSTRACT>

Byeonbalok(辨破錄) is a record to request any revision of literary contents by people or group having opposite opinions which was derived from Byeonmulok(辨誣錄).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ublication of 『Muninlok(門人錄)』 of 『Jeompiljaejip(佔畢齋集)』 through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among books of Byeonmulok.

For this purpose, the printed version of the key resource 『Jeompiljaejip』 was examined, and peculiar features of Gisabon(己巳本) publication was related to the addition of a new literature figures at 『Muninlok』 of 『Jeompiljaejip』.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 was edited by Kim Chui Dong(金聚東) and others by collecting the full account documents on the addition of Mundo of Palgaguhyeon(八家九賢) in the publication of Gisabon 『Jeompiljaejip』. In this study, the specific details were examined, and described that the promise of new publication of Munjip by the family of Jeompiljae as a result of Byeonpa incident.

Together with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 『Jeompiljae Seonsaeng Muninlok(佔畢齋先生門人錄)』 was published also. This study compared contained literary figures with 『Muninlok』 contained in various versions of 『Jeompiljaejip』 and suggested a possibility that 50 persons would be included in the original version prepared by Park Jae Gong(璞齋公).

The situation after publication of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ublication of Imjinbon(壬辰本). As for the known reasons of publication, the study assumed that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 would be one of the reasons of publication which was confirmed by the gap between chronology and appendix.

And, Muninlok appeared in two series as Munjip and Byeonpalok based on the original version of Kim Nyu(金紐), which seems to reflect conflicts on Mundo Cheongan into 『Muninlok』.

Key words: Jeompiljaejip, Jeompiljae Kimseonsaeng Mundo Cheongan Byeonpalok, Jeompiljae Seonsaeng Muninlok, Kim Jongjik, Byeonpalok, Byeonmulok, Kim Sik, Kim Chuidong

1. 緒論

변과록(辨破錄)은 어떠한 문헌이 편찬되었을 때,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해 반(反)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문헌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으로, 변무록(辨誣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¹⁾ 변무록이나 변과록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기 위해 간행하기도 했지만, 수정 요청 과정이 끝난 뒤 그 사실을 알리기를 위해 일련 과정의 시말(始末)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간행하기도 했다.

변과(辨破)의 용어는 변과록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나, 처음으로 서명(書名)에 쓰인 것은 18세기의 『무서변과록(誣書辨破錄)』이다. 이후 필사본과 간행본의 형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변과록이 간행되었다.²⁾

이러한 변과록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헌은 『점필재김선생문도침간변과록(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이하 『침간변과록(添刊辨破錄)』으로 약칭)으로,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 가운데 『문인록』과 관련한 문헌이다.³⁾

기존의 김종직에 대한 연구⁴⁾는 김종직에 대한 연구인 1979년 이원주 교수의 『점필재 연구』⁵⁾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문학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었고, 문헌학적 검증과 역주에 대한 시도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 『점필재선생문집연구』,⁶⁾ 『점필재선생전서』,⁷⁾ 『국역 점필재집』⁸⁾이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이다.

1) 조선시대 辨誣錄은 문헌과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편찬되었으나, 辨破錄의 용어가 형성된 뒤로는 변무록은 사건을, 변과록은 문헌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권석창, “朝鮮時代 辨誣錄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2), 66).

2) 변과록의 유형에 대해서는 권석창(2013), 102-104의 [부록 2] 서명별 주제와의 대응 관계를 참고 요.

3)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논술함.

4)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황위주, “점필재 김종직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전망,” 『東洋漢學研究』 제31집(2010. 8). ; 서강선, “점필재 김종직 연구의 회고와 전망,” 『코키코』 제72호(2012. 8)를 참고하여 문헌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5) 이원주, “佔畢齋研究,” 『韓國學論集』 제6집(1979. 2).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방대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중복성 때문에 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시기의 문헌학적 연구성과로는 『密陽禮林書院版本考』,⁹⁾ 『『점필재집』의 판본 연구』¹⁰⁾가 있다. 2010년대에도 『점필재집 제판본 연구』와 『『점필재집』의 판본 계통 연구』,¹¹⁾ 『김종직 <탁라가>의 이본 고찰』¹²⁾ 등의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구의 특징은 그 대상이 김종직 학단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2004년에 발표된 『점필재 김종직의 학문적 특성과 제자 양성』, 『점필재와 그 문인의 한시에 대하여』 등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의 확대와 방향 전환은 김종직에 대한 연구의 중복성을 극복하면서 제자 그룹을 통해 거꾸로 김종직 관련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동향에 주목하여 『점필재집』의 여러 판본에 수록된 문인록을 『침간변과록』의 간행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점필재집』 판본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는 『침간변과록』의 간행 배경과도 연관되는 사항으로, 문인록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침간변과록』과 『문인록』의 간행과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4장은 『침간변과록』의 등장 이후 간행된 임진본 『점필재집』에 변화된 것이 있었는지 유무를 살펴보고, 영향관계에 대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6) 김광수, “점필재선생문집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김광수, “점필재선생 문집연구,” 『漢文學研究』 제7집(1991. 8).

7) 啓明漢文學研究會, 『점필재선생전서』 (서울: 학민문화사, 1995).

8) 임정기, 『국역 점필재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9)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 제9집(2004. 2).

10) 김윤수, “『점필재집』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2).

11) 서강선, “점필재집 제판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0). ; 서강선, “『점필재집』의 판본 계통 연구,”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12) 윤치부, “김종직 <탁라가>의 이본 고찰,” 『古詩歌研究』 제29집(2012. 2).

2. 『佔畢齋集』의 諸板本¹³⁾

『침간변과록』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점필재집』으로, 그를 위해 기존의 판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점필재집』의 여러 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점필재집』의 간행본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판본은 1495년(연산군 1)과 1498년(연산군 4)에 간행된 초간본(初刊本)과 1520년(중종 15)의 경진본(庚辰本), 1649년(인조 27)의 기축본(己丑本), 1789년(정조 13)의 기유본(己酉本), 1869년(고종 6)의 기사본(己巳本), 1892년(고종 29)의 임진본(壬辰本), 1917년의 대정(大正) 6년본, 1938년의 소화(昭和) 13년본의 8종이 있다. 특히 이 중 직접적으로 『침간변과록』과 연관되는 것은 기유본 이후의 판본들이다.

2.1 初刊本

김종직이 생을 마감한 뒤 그의 생질(甥姪)인 강백진(康伯珍, ?-1504)이 남은 시문을 수습하여 매계(梅溪) 조위(曹偉, 1454-1503)에게 보내어 조위에 의해 17권으로 편집되고 교정되어 성종(成宗)이 을람(乙覽)한 후 간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문집의 구성이 번잡하여 간행되지 못하고, 문(文) 1권을 탈초하는데 머물렀다. 그 뒤에도 조위는 간행자금이 없어 미루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시에 자금을 마련하여 간행을 시도했으나, 갑작스레 상(喪)을 당해, 정석견(鄭錫堅, 1444-1500)에게 간행을 부탁했다. 이에 정석견은 1495년(연산군 1)에 조위가 탈초한 문 1권을 간행하였다. 1497년에 강백진이 조위에게 남은 시(詩)를 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조위가 탈초하여 전라감사(奎羅監司) 이인형(李仁亨, 1436-?)에게 보내 간행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글을 선사(繕寫)할 사람이 없을 것을 염려하여 이수무(李秀茂)와 유효산(柳孝山)에게 부탁하여 주자(鑄字)로 한 권을 인출

13) 2장은 김광수(1991) ; 김운수(2006) ; 서강선(2010) ; 서강선(2014) ; 『점필재선생전서』의 해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했다. 그 후 다음해 1498년(연산군 4)에 조위가 명(明)으로 가게 되어 시집의 나머지 4권을 이창신(李昌臣, 1449-?)에게 주고, 이수무에게 부탁해서 4권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인출한 것을 이인형에게 보내고, 또한 본고(本稿)의 7권은 이창신에게 보냈다.¹⁴⁾ 이것이 초간본(初刊本)인데, 유자광(柳子光, 1439-1512)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문제삼아 일으킨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훼손(毀板)되어¹⁵⁾ 책판과 함께 소실(消失)되었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판본은 없다.

2.2 庚辰本

경진본은 현존하는 『점필재집』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520년 선산(善山)에서 간행되었다.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남곤(南袞, 1471-1527)의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오사화로 인해 점필재 김종직이 화를 당하자 초간본의 문집은 불에 타버리고, 난고(亂稿)마저 상서롭지 못한 물건[不祥之物]이라 여겨 집안 사람들이 소각해 버렸는데, 그 와중에 문집의 10의 2·3을 건져 점필재의 외생(外甥)인 강중진(康仲珍, 1459-1520)이 선산[嵩山]의 읍재(邑宰)와 간행했다고 한다.¹⁶⁾ 시집 23권, 문집 2권으로 25권 7책으로 되어 있다.¹⁷⁾

14) 『燕山君日記』 31卷, 4年 9月 6日(辛丑). “曹偉白: 宗直臣之異母姊夫也. 去壬辰年, 宗直守咸陽, 臣往受『禮記』, 然未卒業. 宗直既死, 臣爲都承旨. 康伯珍以宗直詩文, 付臣請刊行. 其時成宗命納文士遺藁, 臣校李承召詩文六卷, 并宗直詩文十七卷進之. 然簡秩浩繁未得刊, 乃抄文爲一卷. 及臣觀察全羅道, 鳩財欲刊, 適遭喪, 付交代鄭錫堅刊之. 甲寅年, 臣爲忠清觀察使, 駙孫爲都事. 求見宗直文集, 臣授之而已, 未嘗同議編次. 權景裕素無文名, 又無交道, 何由授藁請抄? 前年冬臣服闋上京, 伯珍以宗直詩集付臣請刊. 臣乃抄出, 欲付全羅監司李仁亨刊行, 第患無人繕寫, 乃囑校書別坐李秀茂、校理柳孝山, 以鑄字先印一卷. 及臣赴京, 將其餘四卷付參議李昌臣, 使囑秀茂畢印, 寄與仁亨, 其本藁七卷并付昌臣.”

15) 『燕山君日記』 30卷, 4年 7月 17日(辛丑). “諭全羅道都事鄭宗輔曰: 道內開刊金宗直集板本, 卽燒毀. 傳于禮曹曰: 中外人或藏金宗直集者, 卽令輸納, 不納者重論.”

16) 『佔畢齋集』(庚辰本), 詩 1卷, 『序』: “庚辰秋 判校康君子韜惠然過余曰: 吾舅氏佔畢齋詩文 嘗被成廟宣索 未及獻, 而宮車晏駕, 繼而有戊午之禍, 抄本二十餘帙, 蕩爲煙燼. 尙有亂稿閣在樑上, 家人以爲不祥之物, 又舉而投之火, 傍有人就烈焰中, 鈞取一二編, 纔免全燬. 今存者, 十未二三. 仲珍篋而藏之以寓栝樅之慕, 尙念水火鼠蠹之不期, 而惟散軼泯絕焉, 是懼. 頃在嵩善, 村舍謀之, 邑宰俾壽于梓 切已告成, 而猶闕題辭, 幸子爲我筆之.”

<표 1> 『점필재집』(庚辰本)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佔畢齋集	金宗直 著	中宗 15 (1520)	木板本	零本3冊	四周單邊 半郭 23.9 × 17.0cm, 有界, 10行19字 小字雙行, 或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 31.3 × 20.7cm.		고려대

경진본의 특징은 시집 1권의 앞부분에 남곤의 서문이 있고, 판각해야할 자리인 시 21권 1장의 후면 9행, 9자(字)와 한 자 띄워야 할 자리인 문(文) 2권 21장 전면 1행 6자를 판각하지 않고 묵괴(墨塊)를 남겨 놓은 것이다.

2.3 己丑本

기축본은 1649년에 중간된 것으로 추측되나 서문이나 간기(刊記)가 없으므로, 정확한 간행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축본에 보유된 『이준록(彝尊錄)』의 간백진 지(識)에 이만(李曼, 1605-1664)이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홍치 10년인 정사년에 처음으로 판각을 하였으나 임진년의 병화(兵火)로 인하여 이것은 없어져서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백여 년 뒤인 기축년에 이르러서, 문집은 방백(方伯) 이공 만(李公曼)이 다시 간행 반포하였고, 『이준록』은 예림서원(禮林書院)에서 중간(重刊)하였다.¹⁸⁾

위의 간기에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새로이 판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만의 생몰년을 통해 기축년은 1649년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이만이 경상도관찰사로 있었으므로, 간행 장소를 밀양의 예림서원(禮林書院)으

17) 경진본에 대해 일본의 輪王寺에 소장되어 있는 『佔畢齋集』이 『梅堂稿』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함께 간행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판심의 대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서강선(2010), 9-10).

18) 『佔畢齋集』, 『彝尊錄』 識. “弘治十年丁巳, 始得鈔梓. 壬辰兵燹, 泯沒不傳. 百餘年後. 至己丑年, 文集則方伯李公曼, 更爲印布. 彝尊錄則重刊于禮林書院.”

로 추측하기도 한다.

기축본은 경진본의 체계를 유지하며, 『이준록』을 첨부하여 새로이 간행하여 총 27권 8책이다.¹⁹⁾ 특징적인 것은 서발문이 없고, 글자에 있어 교감이 필요한 부분에 두주를 달아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다. 경진본에 있었던 남곤의 서문을 삭제한 것은 남곤이 기묘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라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²⁰⁾

<표 2> 『점필재집』(己丑本)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佔畢齋集	金宗直 著	仁祖 27 (1649)	木板本	零本4冊 (全7冊)	四周單邊 半郭 23.2 × 16.5cm, 有界, 10行19字 小字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33.6 × 22.4cm.	版心題: 畢齋	고려대

기축본과 관련해서는 기축본 이전에 1640년(인조 18)에 전주에서 간행된 적이 있는 듯 하나 확인하기는 힘들다.²¹⁾ 또한 기축본에 대해서 경진본의 후쇄본이라는 설과 새로이 판각했다는 설이 있는데,²²⁾ 서강선이 판심 대조를 통해 판심을 같지만, 글씨체가 달라 다른 판목임을 주장했다.²³⁾

19) 己丑本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내용의 편차는 없으며, 다만 『彝尊錄』의 보유 유무에 따라 7책본과 8책본이 있다(서강선(2010), 12-14).

20) 『佔畢齋集』(庚辰本)의 『점필재선생연보』에 수록된 남곤의 舊序의 주석에 ‘이것은 남곤이 지은 것인데 기묘이후에 절거하였다.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을 갖추어서 후일의 참고로 보인다.’고 했으나, 기묘사화는 경진본 간행 1년전인 15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21)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古鮮冊譜』의 ‘『佔畢齋集』二十五卷 金宗直 木板, 七冊, 仁祖庚辰全州尹韓興一入梓’란 기록을 인용하여 전주에서 간행한 판본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다(김광수(1991), 59).

22) 후쇄본이라는 주장을 한 학자로는 오세옥(한국문집총간해제 1), 송용섭(규장각 소장 『점필재집』 해제·민족문화추진회 『점필재집』의 해제)이 있고, 새로이 판각했다는 주장을 한 학자로는 김근태(한국고전번역원 해제), 김광수(1991), 김윤수(2006)가 있다.

23) 서강선(2010), 32-46.

2.4 己酉本

기유본은 1789년에 김종직의 후손인 김상도(金相度, 1766-1814)가 기축본 판본을 다시 후쇄하면서 간옹(良翁) 이헌경(李獻慶, 1719-1791)에게 서문을 받아 증보하고, 김종직의 손자인 김뉴(金紐)가 1580년에 편찬한 『점필재선생연보(佔畢齋先生年譜)』를 교정하여 보유하였다.

간행된 지 수백년인데 서문이 없이 이르고 있어 지금 선생의 후손 일정(김상도)이 와서 구변없는 사람(이헌경)에게 선생의 연보를 맡기며 부탁하기를 “당신께서 연보를 교정해 주십시오.”하니 구변 없는 사람이 (교정하기에) 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끝내 사양할 수 없었다. 비록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으나, 지금 선생을 위해 일을 맡아 할 수 있게 되니 이 또한 후학의 행운 중 하나일 것이다. 마침내 감히 이같이 서문을 짓는다.²⁴⁾

기유본은 기축본의 『이준록』이 편제에서 제외되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헌경의 서문과 『부유문(附遺文)』·『부구서(附舊序)』(남곤의 서문)·『점필재선생연보』·『무오사화사적(戊午士禍事蹟)』·『문인록(門人錄)』·『후서(後序)』·『비명(碑銘)』이 보유되어 있다. 또한 기유본 이후로 『점필재집』에 『문인록』이 추가되었으며, 이헌경의 서문이 계속 실리게 되었다.

<표 3> 『점필재집』(己酉本)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佔畢齋集	金宗直 著	正祖 13 (1789)	木板本	25卷 7册	四周雙邊 半郭 22.0 × 16.8cm, 有界, 10行 19字, 上下內向花紋 魚尾(不同) : 31.0 × 20.5cm.	序:己酉(1789) ... 李獻慶 影印本: 한국문 집총간(v.12), 1988	규장각

24) 『佔畢齋集』(己酉本), 『序』. “刊行數百年, 迄無弁卷之文. 今先生之裔孫一精甫來請於不佞. 且以先生年譜屬之曰. 子其勘正之. 不佞辭以非其人. 卒不得辭者. 雖未得御於先生, 今得爲役於先生, 亦後學之一幸故也. 遂敢爲之序如此.”

2.5 己巳本

기사본은 1869년에 김종직의 13대손인 김식(金植, 1807-1876)이 밀양 예림서원에서 간행한 것인데,²⁵⁾ 이 판본은 경진본·기축본과는 그 체계가 상당히 다르다. 기존의 판본이 25권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던데 반해, 기사본은 시집 8권, 문집 2권의 10권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연보」·「문인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본이 이전 판본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目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시 목록은 시집 1권 앞부분에, 문집 목록은 문집 각 권의 앞부분에 있다.

둘째, 경진본과 기축본에서 시가 1,676수인데 기사본은 그 중 584수가 삭제되었다. 반면 그 전 판본에 없었던 시 2수와 문집 1권에 「답박상사형달서(答朴上舍亨達書)」를, 문집 2권에 「사미정기(四美亭記)」를 첨가하였다.²⁶⁾

셋째, 기축본에서 처음으로 두주가 나타났는데, 기사본에서는 두주를 삭제하였다. 혹 두주에 따라 고쳐 판각한 부분도 나타난다.

넷째, 시집은 10행 20자이나 문집은 10행 19자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시집 부분은 새로 판각했으나, 문집 부분은 기축본의 판본을 수보하여 다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집 중 10행 20자로 판각된 곳도 있는데, 이는 기사본에 「답박상사형달서」를 첨가하면서도 기축본 판본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기축본의 체계에 따라 장수(張數)와 행수(行數)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미정기」를 첨가하면서 문집 2권의 29판(板)이 두 번 들어가게 되었다.²⁷⁾

25) 詩集 第 8卷末에 ‘崇禎紀元後四己巳陽復月下十三代孫植重刊于密陽禮林書院’이란 刊記가 있는데, 이는 金植의 생몰년과 대조해 봤을 때 명백한 오류이다. ‘崇禎紀元後四己巳’는 1809년으로 이는 ‘崇禎紀元後五己巳’의 誤記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1809년에 간행되었다는 서지사항 기록은 모두 이에 따른 오류로 보인다(윤상기(2006), 9; 서강선(2010) 23-24).

26) 첨가된 「答朴上舍亨達書」와 「四美亭記」는 모두 金植에 의해 문도로 첨입된 八家九賢 중 한명인 朴亨達과 연관 있는 글로, 四美亭은 박형달의 號이다.

27) 이는 金植이 기존의 기축본 문집 판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四美亭記」를 첨가하

기사본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시와 문을 첨삭한 것에도 있지만, 김식이 금품을 수수하고 『문인록』에 10명을 첩입하여 59명으로 증보한 것에 있다.²⁸⁾ 이 부분이 『첨간변과록』이 간행된 배경이다.²⁹⁾

<표 4> 『점필재집』(己巳本)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估畢齋集	金宗直 著	高宗 6 (1869)	木板本	詩集8卷4冊, 文集2卷2冊, 年譜1冊, 文集附錄1卷 1冊, 共8冊	四周單邊 半郭 20.2 × 16.9cm, 有界, 10行20字 (10行19字) 註雙行, 上 下內向二葉花紋魚尾 ; 29.8 × 21.0cm.		연세대

2.6 壬辰本

이 판본은 1892년에 김중직의 후손(後孫)인 김계현(金啓鉉)³⁰⁾ · 김창현(金昌鉉, 1847-1921)이 예림서원 훼손 이후 유실된 기사본의 책판을 수보한 것이다. 임진본은 대체로 시집 8권, 문집 2권, 『이준록』과 『연보』 · 『부록』을 합하여 9책으로 되어있지만, 시집목록과 시 1권으로 구성된 1책을 분리하여 10책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이 판본은 기사본의 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체로 먹이 선명하지만 수보한 판은 자체(字體)가 치졸(稚拙)하고 일목요연하지 않다.

임진본은 기사본과 편차상 거의 동일하지만 부록과 연보에서는 그 체제가 다르며, 그 차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고자 하여 본래 29판에 있던 『風詠樓重營記』 외에 『사미정기』가 수록된 새로운 29판을 만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 28) 『估畢齋集』 『門人錄』(己巳本)에 기록된 문인들에 대한 설명 중 함께 수학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楊沈 · 李翹 · 李翹 · 李翹 등을 포함시켜 63명으로 집계하였다(황위주(2010), 24). 하지만 본고에서는 『門人錄』에 項目條가 있는 59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29) 서강선(2010), 21-22. 『估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 『估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과 『門人錄』의 刊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30) 金啓鉉은 기사본을 간행한 金埴의 아들이다.

첫째, 기사본의 문집 2권에 수록되어 있던 「사미정기」가 임진본에서는 부록의 「유문(遺文)」에 들어가 있다.

둘째, 기사본의 연보 속에는 「유문」·「구서」·「국조보감」·김창현의 「발」이 있는데, 임진본의 연보에는 김창현의 발문을 삭제하고, 「국조보감」, 「유문」과 「구서」는 부록에 수록했다.³¹⁾

셋째, 기사본의 부록에는 「시장(諡狀)」·「야로사우지사급문(冶爐祠宇址斜給文)」·「변무문(辨誣文)」·「여지승람(輿地勝覽)」·「사호도부(四皓圖賦)」 등이 있는데, 임진본에서는 없애고, 송병선(宋秉璿, 1836-1905)과 이현영(李鑣永, 1837-1907)의 발문을 첨가했다.³²⁾

<표 5> 『점필재집』(壬辰本)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估畢齋集	金宗直 著	高宗 29 (1892)	木板本	10冊	四周雙邊 半郭 21.3 × 16.7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 魚尾 : 30.5 × 21.5cm.	序:李獻慶 跋:崇禎紀元後 五壬辰(1892).. 宋秉璿	국립 중앙 도서관

그 외에도 1917년에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의 주인인 김기홍(金琪鴻)에 의해 간행된 대정 6년본과 1938년 임진본에 김종직의 15대손인 김태진(金泰鎭)의 발문을 첨입하여 후쇄한 소화 13년본이 있다. 대정 6년본은 서지사항을 알 수 있는 판권지(版權紙)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판본은 모두 임진본을 교정한

31) 서강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기사본의 연보 속에는 「遺文」·「舊序」·「國朝寶鑑」·金昌鉉의 「跋」이 있는데, 임진본의 연보에는 「국조보감」과 김창현의 발문을 삭제하고, 「유문」과 「구서」는 부록에 수록했다.”(서강선(2010), 25)고 기술하여 「국조보감」을 삭제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기사본과 임진본의 원문을 대조한 결과 이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4장에서 논술함.

32) 서강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기사본 부록에 「先賢錄」과 「東國名臣錄」이 있었으나, 임진본에서는 삭제되었고, 임진본 부록에 「書院立議」가 추가되었다.”(서강선(2010), 25)고 기술했으나, 기사본과 임진본의 원문을 대조한 결과 이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4장에서 논술함.

것으로 내용과 편차는 동일하나 일부 글자를 교정하였다.

3. 『估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과 『門人錄』의 刊行

3.1 『估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의 刊行

『첨간변과록』은 1869년에 점필재(估畢齋) 김종직의 본손(本孫)인 김식이 『점필재집』을 간행하던 과정에서 문도를 새로이 첨입하여 간행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화할 때, 그 전말에 관계되는 통문(通文), 서찰(書札) 그 밖의 여러 공문(公文)을 수록하여 1875년(고종 12)에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14대손인 김취동(金聚東, 1825-1877) 등이 편찬한 책이다.³³⁾

<표 6> 『估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估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金聚東 等編	高宗 12 (1875)	木板本	1冊 (31張)	四周雙邊 半郭 20.0 × 16.4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上下花紋魚尾 : 30.7 × 20.0cm.	跋: 乙亥(1875) …金聚東	규장각

기존의 연구에서 『첨간변과록』은 기사본의 간행동기를 설명하는데 주로 인용되었고,³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해제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이 책은 변화의 일련 과정이 끝난 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33) 서울대학교도서관 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3』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521-522.

34) 김광수(1991), 60-61 ; 김윤수(2006), 322-323 ; 서강선(2010), 19-20.

이 책은 범례와 사실 및 관련 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본문 그리고 김취동의 발문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범례는 총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補刊事實은 門人錄에 直繫할 수 없으니 따로 編하여 尊畏의 뜻을 다한다.
- 一. 辨斥의 뜻은 鄉道通章에 瞭然하고 그 진말은 總會文字에 갖추어져 있는 까닭에 먼저 『事實』에 一通하여 卜明한다.
- 一. 도내의 通章은 公案 문자와 연계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감히 존재해 있는 것을 일일이 뽑아서 수록하지는 않았다.
- 一. 鄉間通章 전후가 겹쳐서 변쇄하니, 그러므로 대략 (그 내용을) 깎아내고, 뽑아서 簡嚴의 뜻을 다했다.
- 一. 佳谷 通札은 本家議論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또한 수록하였다.
- 一. 呈狀과 甘結의 말은 아울러 권말에 붙여놓았다.

본문을 살펴보면 앞의 범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을 통해 대략적인 변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설령 高明博雅한 者가 그 사이에 나오더라도 감히 마음대로 增損할 수 없을 것인데, 오직 저 本孫인 金植이 本集板本이 닳아 없어짐으로써 밖으로는 先賢의 이름을 빌리고, 안으로는 사사로이 경영의 계책을 품어 중간이라 칭탁하고, 문득 먼 곳의 世誼家 및 某某家의 소식이 서로 미치지 않는 곳을 왕래하여 말을 꾸며 많은 재물의 도움을 구해서 모두 간행하기 전에 거두었으니, 形跡이 모두 드러남에 미처서 책망하는 말이 사방에서 이른 즉 비방을 누그러뜨리고 허물을 감추는 계책을 꾸며내어 사사로이 刊所를 밀양에 설치하였다.³⁵⁾

혹 감히 詩句를 가필하여 記文에 처음 나타나는 글이 있으니, 이것은 눈을 가리게 하고 방울을 훔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데 百世의 公眼을 어찌 속이겠는가? 또한 신간 부록의 글은 어느 때에 지었고, 어느 곳에서 얻은 것인가?³⁶⁾

35)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事實』, “說有高明博雅者, 出有其間, 不敢擅自增損, 而惟彼本孫金植, 而文集板本之剝缺, 外假爲先之名, 內懷營私之計稱以重刊, 閃忽往來於遠之世誼家及某某家聲息不相及之地, 飾辭求助許多之財, 盡括於營刊之前, 及形跡盡露責言四至, 則粧出炮誘藏垢之計, 私設刊所於密陽.”

위의 기록을 통해 당시에 김식이 『점필재집』의 판본이 남아 없어졌다는 이유로, 새로이 중간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收受)하고, 문집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침삭하여 간행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문에 수록된 통문이나 서찰 등 여러 문서를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³⁷⁾ 전체적인 문서를 살펴보면, 대개의 문서를 발급한 주체가 도동서원(道東書院)임을 알 수 있다. 도동서원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숭앙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³⁸⁾ 이러한 문서들과 발문을 작성한 김취동을 고려하면, 이 변화사건은 김굉필을 중심으로 한 문도의 후예층에서 점필재의 집안에서 간행한 문집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본다면 기사본에서 시의 1/3 정도가 산삭되었음을 문제삼기보다는 문인록에 새로운 문인을 첨가한 것에 대해 문제삼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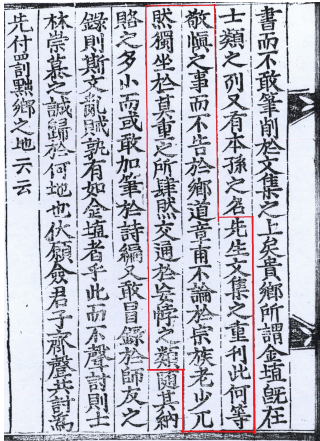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왕래한 문서에서 축조변과(逐條辨破)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동서원에서 고령향교로 보낸 통문의 내용이다.

36)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事實』, “或敢加筆於詩句, 濫觴於記文, 此不過遮偷鈴之術 百世公眼 焉可誣乎? 且觀新刊附錄其狀錄文, 何時所作何處得來也.”

37) 抵高靈鄉校通文(道東書院) / 金埴答通 / 辨破金埴答通 / 抵佳谷本孫通文(道東書院) / 佳谷發明通文(金昌鉉 金埴 等) / 抵密陽通文(道東書院 會中) / 密陽答通文 / 辨破密陽通文 / 又抵密陽通文 / 抵門徒各宅通文(道東書院 會中) / 咸陽藍溪書院答通文 / 金山鳳溪曹氏答通文 / 尙州鳳臺姜氏答通文 / 善山坪城康氏答札 / 金昌鉉札 / 抵佳谷宗中札(道東書院) / 佳谷答札 / 抵密陽通文(各處門徒後裔 會中) / 通密陽鄉校(道東書院 會中) / 佳谷抵密陽通文 / 泮中搢紳通文(抵本道列邑) / 坪城康氏抵佳谷通文 / 至高靈狀 / 題音 / 呈營狀 / 題音 / 甘結(密陽) / 甘結(高靈) 본문에 수록된 관련 문서들로 제목 안에 小字로 기재된 것은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 이 괄호 안의 것은 대개 해당 글의 발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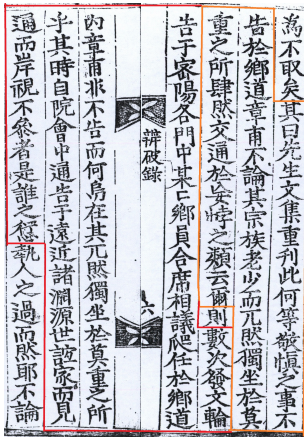
38)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에 있다. 본래는 1568년(선조 1)에 현풍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건립되었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1605년(선조 38) 지금의 자리에 중건되었다.

39)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埴答通』, “大略逐條細細垂察焉.” 이는 다른 문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抵高嶺鄉校通文」의 일부

이에 대해 김식은 답장에서 위의 내용을 ‘其曰 … 云爾’의 형식⁴⁰⁾으로 그대로 전재(轉載)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림 2>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壇答通」의 일부

선생의 문집을 중간하는 것은 지극히 삼가야 할 일인데도 鄉道의 章甫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宗族의 老少를 논하지 않고, 저 홀로 막중한 곳에 앉아 방자히 망령되고 悖倫한 무리와 交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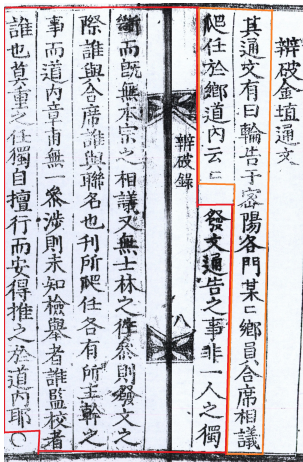
[先生文集重刊, 此何等敬慎之事, 不告於鄉道章甫, 不論其宗族老少, 而兀然獨坐於莫重之所, 肆然交通於安時之類.]

여러 차례 통문을 내어 밀양의 각 門中에 알리고, 某某의 鄉員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의논해서 鄉道內의 章甫들에게 책임을 맡기었다. 알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찌 혼자 막중한 곳에 앉았겠는가? 그때 院의 會中으로부터 멀고 가까운 淵源과 世誼家에 알렸으나, 통문을 보고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數次發文輪告于密陽各門中, 某某鄉員合席相議, 爬任於鄉道內章, 非不告, 而何烏在其兀然獨坐於莫重之所乎? 其時自院會中, 通告于遠近諸淵源世誼家, 而見通而岸視不參者, 是誰之愆.]

40) 이는 辨破錄 유형의 서적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식이다.

김식 자신은 분명히 통문을 돌려 알렸으나, 참석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김식은 간행하기 전에 가곡에 있는 종종에서 회답을 얻은 뒤에야 추록했다고 이야기했다.⁴¹⁾ 하지만 도동서원측은 이에 대해 다시 변화하는 글을 쓴다.⁴²⁾ 이 또한 ‘其通文有曰 … 云云’이나 ‘又曰 … 云云’과 같은 형식으로 김식의 답장 내용을 인용하고, 그 아래에 다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였다.



통문을 발급하여 알리는 일은 한사람의 독단으로 할 것이 아니며, 本宗의 상의도 없었다. 또한 사림 가운데 와서 참여한 사람이 없으니, 곧 통문을 발급했을 때 누구와 함께 합석했으며, 누구와 함께 연명했는가? 간행에 업무분담을 하면 각기 主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도내의 章甫들 중 한명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없으니, 곧 檢學한 자는 누구이며, 監校한 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막중한 임무를 홀로 마음대로 하니 어찌 도내의 추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發文通告之事, 非一人之獨斷 而既無本宗之相議, 又無士林之往參 則發文之際, 誰與合席, 誰與聯名也. 刊所爬任各有所主幹之事 而道內章甫無一參涉 則未知檢學者誰, 監校者誰也. 莫重之任, 獨自擅行 而安得推之於道內耶.]

<그림 3>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辨破金埴通文」의 일부

이는 간행 관련 사항을 김식이 혼자 주도하고, 도내에서는 상의에 참여한 사람도, 간행에 참여한 사람도 없으니, 김식이 문집 간행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또한 간행하기 전에 가곡 종종에 상의했다는 김식의 말을 듣고,⁴³⁾ 이는 김식의 집안에서 독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 사림과 문도 각

41)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埴答通」, “未刊之前, 自會中定有司裁, 通於佳谷宗中, 得見回答後追錄.”

42)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辨破金埴通文」, 발급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앞의 김식의 답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므로, 도동서원에서 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43)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埴答通」, “未刊前, 自會中定有司裁, 通於佳谷宗中, 得見回答後追錄矣.”

집안에 논의했어야 마땅함⁴⁴⁾을 주장하였다. 또 가곡의 본손에게도 통문을 보내 김식의 죄를 묻고, 판(板)을 부숴야 한다고 했다.⁴⁵⁾

이에 대해 본손인 김창현과 김고(金塙)는 김식에게 편지를 받았고, 문집 중간 의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추록(追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이는 선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김식을 성토했다.⁴⁶⁾ 또 그 이후에 도동서원에 편지를 보내 문집의 발문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이를 예사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발문을 작성한 것은 자신에게 허물을 덮어씌우기 위한 매개물로 사용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⁴⁷⁾

도동서원은 그 밖에도 문집의 간행지인 밀양과 각 문도들 후예의 집, 정여창이 배향된 남계서원(藍溪書院), 조위·강흔(姜訢)·강증진의 후손 집안 등에도 통문⁴⁸⁾을 보내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⁴⁹⁾ 이에 대해 문집의 간행지인 밀양의 예림서원에서는 김식의 문집 간행을 옹호하는 답통문(答通文)⁵⁰⁾을 보냈지만, 도동서원에서 변화하였다.⁵¹⁾

이에 차츰 각 문도의 집안과 서원에서 중의(衆意)가 모이자, 문집의 간소인 예림서원에 통문을 보내 김창현의 발문을 삭제해 줄 것과 구본(舊本)에 의거하여 보간(補刊)할 계획을 세우고, 각 문중에서 재물을 모으고 있으니, 신판(新板) 가

44)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辨破金堦通文』, “門徒追錄斷非貴宗之獨擅, 士林與門徒各家亦當爛議可否 則何獨往質于佳谷而任自存拔也哉.”

45)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抵佳谷本孫通文(道東書院)』, “使之聲其罪, 削其案, 破其板, 泐其章以後止哉.”

46)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佳谷發明通文(金昌鉉 金塙 等)』, “其辭意伏想與抵鄙宗書無異矣. … 蓋文集板本鏤之已久多有剝毀, 故兩公果有重刊之意, … 且鄙等先祖璞齋公所撰之中, 元無追錄之訓, … 私自追演士論何等公也 而反自凌辱. 噫彼埴果何人也.”

47)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昌鉉札』, “就先集跋文, 作而不知, 書而不知, 至於印出亦爲例看矣. 挽近詳攷跋中辭意 則當初偷名果是嫁咎之罔也.”

48)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抵密陽通文(道東書院 會中)』, 『抵門徒各宅通文(道東書院 會中)』.

49)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咸陽藍溪書院答通文』, 『金山鳳溪曹氏答通文』, 『尙州鳳臺姜氏答通文』, 『善山坪城康氏答札』.

50)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密陽答通文』.

51)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辨破密陽通文』.

운데 문인록부터 새로운 발문까지의 판(板)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⁵²⁾ 또한 가곡(佳谷)의 본손에게 통문을 보내 김식과 문도의 후예들 사이에서 중재(仲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⁵³⁾

하지만 본손 측에서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마지막에는 고령관아와 감영(監營)에 정문(正文)을 올려⁵⁴⁾ 데김[題音]⁵⁵⁾과 밀양, 고령에 내리는 감결(甘結)⁵⁶⁾을 받았다. 이 문서 역시 본문의 마지막에 첨부되는데, 고령에서 내린 데김의 내용은 ‘곡직이 명확하니 유림이 자의에 어렵지 않게 바로 잡힐 일’⁵⁷⁾이라는 것이었고, 감영에서 내린 데김의 내용은 ‘문인록에는 선배명류(先輩名流)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뽑고 다른 것을 넣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패손(悖孫)이 있는가? 마땅히 해당 주(州)에 명을 내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간행하게 할 것이다’는 것과 ‘구판(舊板)과 지금 통행하는 판을 본손과 여러 사림(士林)의 사람들은 가지고 오라’⁵⁸⁾는 것이었다.

밀양에 내린 감결의 요지는 “새로이 첨록한 판을 없애고, 옛 판을 그대로 간인한 뒤에 전말을 보고하라”⁵⁹⁾는 것이었고, 고령에 내린 감결의 요지는 “김식에게

52)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抵密陽通文(各處門徒後裔會中)』, “達成會之通既有必削之諭金昌鉉之跋 … 將以九月間依舊本補刊爲計, 以爲敦任於道內鳩財於各門, 新板中自門人錄以下, 至新跋以上, 幾板并爲輸送於本院刊所.”

53)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坪城康氏抵佳谷通文』, “未聞本孫調停之道 … 四百年宗師之嫡統文字至是 而爲斯文之一闢端究厥所由 一則貴門也. 二則貴門也. 曾不意貴門之如是無人也.”

54)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呈高靈狀』, 『呈營狀』.

55) 題音은 백성이 제출한 訴狀·請願書·陳情書(所志·白活·單子·等狀·上書·原情 등)의 左편 下端餘白에 官(府)에서 써주는 判決文·處決文이다(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서울: 知識產業社, 1989), 278).

56) 甘結은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내리는 문서로서, 命令·指示의 내용이 주가 된다. 감결을 등록한 것도 볼 수 있다(최승희(1989), 216).

57)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呈高靈狀』에 대한 題音. “曲直昭然, 儒林自在不難歸正向事.”

58)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呈營狀』에 대한 題音. “門人之錄, 俱是先輩名流 而拔此入他, 世安有如此悖孫乎. 當嚴關該州, 使之去舊刊新向事.”, “舊板與今行之板, 本孫與諸士林持待次. (同日更題).”

59)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甘結(密陽)』, “破其添附之板, 仍舊貫刊出後, 形止報來向事.”

구판과 지금 통행하는 판을 찾아내 원고, 피고가 함께 감영으로 와서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 잡을 일”⁶⁰⁾이라는 것이었다.

김취동이 작성한 발문에는 앞의 사건에 대한 요약적인 이야기와 감결을 받은 후에 바로 감결의 내용처럼 옛 책판 그대로를 간행하지는 못했지만, 향도(鄉道)의 논의가 오래될수록 더욱 격해지자, 가곡 본손이 개간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⁶¹⁾ 이는 임진본의 간행이 가곡의 본손인 김창현과 김계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통해 그 간행이 이 향도와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2 『佔畢齋先生門人錄』의 刊行

『점필재선생문인록(佔畢齋先生門人錄)』(이하 『변파록 문인록』으로 칭함)은 앞에 소개한 『침간변파록』과 함께 간행된 책으로, 표제가 『점필재선생문인록』 또는 『점필재김선생문인록(佔畢齋金先生門人錄)』으로 되어 있다. 현재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이 책만 소장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⁶²⁾ 반대로 『침간변파록』만을 소장하고 있는 곳도 있다.⁶³⁾ 또한 두 책을 모두 소장하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책으로 생각하여 청구기호를 따로 설정해놓은 경우도 있고,⁶⁴⁾ 두 책을 한 묶음으로 분류해 놓은 곳도 있다.⁶⁵⁾ 현재 이 책은 1995년 계명한문학회에 의해 영인된 『점필재선생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60)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甘結(高靈)』. “金植處 舊板與今行之板, 星火覓出, 并與兩隻 而起送營下, 以爲查實釐正向事.”

61)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跋文』. “鄉道之論久而愈激, 只緣佳谷本孫有刻期改刊之言.”

62) 경기대학교 (K100874); 충남대학교(고서 集.總集類-韓國 2236·고서 史.記錄類 2062); 한국 국학진흥원.

6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 951.092 점필재); 조선대학교 (O/G 920.09519 ㅈ338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6800); 연세대학교 (고서(I) 920 김취동 점).

64) 부산대학교 (문인록: OGC 4-2 815, 변파록: OGC 4-2 814); 성균관대학교 (문인록: B09C-0432 六宜堂文庫, 변파록: B09C-0431 六宜堂文庫).

65) 국립 중앙도서관 (古2513-7); 국민대학교 (고991.1 김01); 영남대학교 (古汶 151.51099 김종직).

<표 7> 『佔畢齋先生門人錄』 서지사항

서명	저자사항	간행시기	판사항	책수	형태사항	비고	소장처
佔畢齋 金先生 門人錄	金聚東 等 編	高宗 12 (1875)	木板本	2冊	四周雙邊 半郭 20.4 × 16.2 cm. 有界, 10行18字, 內向2葉花紋 魚尾 ; 29.7 × 20.0 cm.	序: 乙亥(1875)...許傳 謹序. 跋: 乙亥(1875)... 金聚東謹跋. 내용: 乾, 佔畢齋金先生 門人錄.--坤, 佔畢齋金 先生文徒錄添刊辨破錄.	국민대

문인록은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80년에 김누가 편찬한 연보에 수록되었으며, 그 후 1789년 김상도의 부탁으로 이헌경이 교정한 후 『점필재집』 기유본에 수록되었다. 그 후 김식이 기사본을 간행하면서 문인을 첨입한 것이 문제되어 1875년에 『변과록 문인록』이 별책으로 간행되게 된 것이다.⁶⁶⁾ 현재는 1580년 김누가 편찬한 연보를 제외한 『점필재집』 기유본과 기사본, 임진본, 대정 6년본, 소화 13년본에 수록된 문인록 그리고 1875년 간행된 별책의 문인록이 남아있다.⁶⁷⁾

여기에서는 1875년까지의 문인록을 살펴보고, 그 변화과정과 문인록의 본래 모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⁶⁸⁾

기유본과 기사본, 1875년의 『변과록 문인록』에 수록된 문도들의 명단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66) 『佔畢齋先生門人錄』의 간행에 대한 논의는 이미 김식의 팔가구현 침록에 대한 변화가 이뤄졌던 당시에 있었다.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坪城康氏抵佳谷通文』, “門徒家之發論, 補板更刊門錄者, 是誠出於萬不得已, 權宜之道.”

67) 대정 6년본과 소화 13년본은 임진본과 체계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68) 1875년 이후의 문인록은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등장 이후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변화와 함께 4장에서 논술함.

<표 8> 각 판본의 문인록 소재 문인 순서 비교

기유본 문인록 (1789)	기사본 문인록 (1869)	변과록 문인록 (1875)
金孟性	金孟性	金孟性
鄭汝昌	鄭汝昌	鄭汝昌
金宏弼	金宏弼	金宏弼
曹偉	曹偉	曹偉
南孝溫	南孝溫	南孝溫
金駟孫	金駟孫	金駟孫
.	趙益貞	趙益貞
權五福	權五福	權五福
俞好仁	俞好仁	俞好仁
朴漢柱	朴漢柱	朴漢柱
李蘊	李蘊	李蘊
李胄	李胄	李胄
李承彥	李承彥	李承彥
元概	元概	元概
李鐵均	李鐵均	李鐵均
郭承華	郭承華	郭承華
姜訢	姜訢	姜訢
權景裕	權景裕	權景裕
李穆	李穆	李穆
姜景敍	姜景敍	姜景敍
李守恭	李守恭	李守恭
鄭希良	鄭希良	鄭希良
盧祖同	盧璋 (盧祖同)	盧祖同
姜希孟	姜希孟	姜希孟
任熙載	任熙載	任熙載
李繼孟	李繼孟	李繼孟
姜謙	姜謙	姜謙
洪翰	洪翰	洪翰
茂豊副正揚 (李摠)	茂豊副正揚 (李摠)	茂豊副正揚 (李摠)
鄭承祖	鄭承祖	鄭承祖
姜伯珍	姜伯珍	姜伯珍
姜仲珍	姜仲珍	姜仲珍
金訢	金訢	金訢
金用石	金用石	金用石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기유본 문인록 (1789)	기사본 문인록 (1869)	변과록 문인록 (1875)
洪裕孫	洪裕孫	洪裕孫
李宗準	李宗準	李宗準
崔溥	崔溥	崔溥
表沿沫	表沿沫	表沿沫
安遇	安遇	安遇
許磐	許磐	許磐
柳順汀	柳順汀	柳順汀
鄭世麟	鄭世麟	鄭世麟
禹善言	禹善言	禹善言
申永禧	申永禧	申永禧
孫孝祖	孫孝祖	孫孝祖
金驥孫	金驥孫	金驥孫
姜渾	姜渾	姜渾
周允昌	周允昌	周允昌
方有寧	方有寧	方有寧
楊浚	楊浚	楊浚
	孫仲暉	
	李仁亨	
	朴亨達	
	安觀	
	李義亨	
	朴守堅	
	金續	
	河沖	
	閔九齡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먼저 기유본에 수록된 문인의 수는 49인이다. 이는 기사본이 간행되면서 10인이 추록되어 59인이 되는데, 『변과록 문인록』에 기재된 문인의 수는 50인이다. 모두 각기 수록하고 있는 문인의 수가 상이한 것이다.⁶⁹⁾ 그 이유는 무엇일까?

69) 서강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기존의 원 문인이 50명이라는 『佔畢齋先生全書』의 「佔畢齋先生全集 解題」와 김운수(2006)의 연구에 대해 이는 오류이며, 처음의 『문인록』의 문인은 49명이요 이에 10명을 첩입한 것이라 주장했다(서강선(2010), 22-23).

본고에서는 『변과록 문인록』에 수록된 문인의 수가 1580년 김뉴가 편찬한 『집필재선생연보』와 같고, 기유본에서는 이헌경의 교정 과정에서 자의나 실수에 의해 조익정(趙益貞, 1436-1499) 항목이 삭제되거나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과록 문인록』과 『침간변과록』은 기사본의 침록된 문인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편찬되었는데, 조익정을 제외한 ‘팔가구현(八家九賢)⁷⁰⁾에 대해서는 『사실』에서도 언급하고 있고,⁷¹⁾ 김식 또한 자신이 보낸 통문에서 ‘팔가구현’을 수록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⁷²⁾ 조익정이 문인록에 수록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본과 같은 위치에 조익정을 추가하였다.

둘째, 『변과록 문인록』에 수록된 허전(許傳, 1797-1886)의 서문과 범례에 의거한 것이다. 허전이 쓴 서문에 박재공이 직접 쓴 문인록에 수록된 문인이 50인⁷³⁾임을 밝히고 있으며, 범례에서도 기유본이 아닌 박재공의 정본에 의거할 것⁷⁴⁾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박재공의 정본에 기재된 점필재 문인의 수는 50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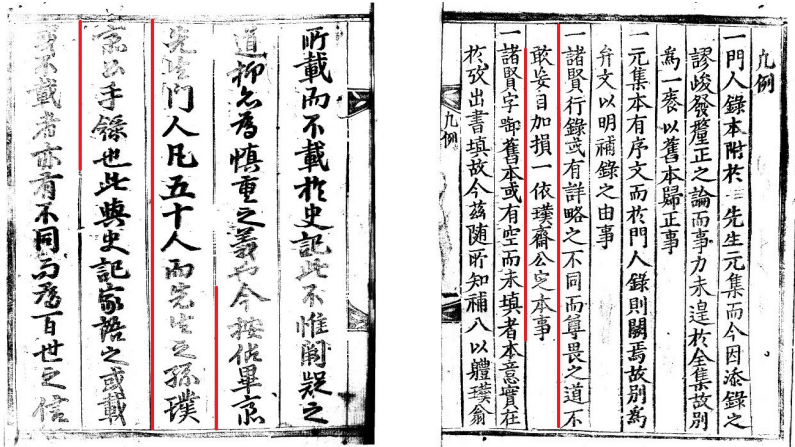
70) 孫仲敦, 李仁亨, 朴亨達, 安觀, 李義亨, 朴守堅, 金縝, 河沖, 閔九齡으로, 이인형과 이의형은 형제이기 때문에 8개의 가문이다.

71)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事實』. “始爲借冊奉翫則果是八家九賢(孫愚齋·李梅軒·閔尉齋·朴四美亭·安苔巒·朴慕先亭·李杏軒·河遜齋·金四止堂), 加書於舊門錄之下, 璞齋公跋文之上.”

72)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金埴答通』. “況且考諸邑乘及諸家集中有章表著者, 至若愚齋孫公, 罷黜於甲子之禍. 梅軒李公, 酷被泉壤之禍. 杏軒李公, 多有問難之益載在邑誌. 四美亭朴公, 有先祖遺墨推許之書. 苔巒安公, 登門請誨以清白著. 慕先朴公, 早年受業, 退養林泉事蹟, 著在邑誌. 遜齋河公, 樞衣及門講劄綱繆的受眞詮多著唱酬篇什, 屢再閱公, 以先祖家彌甥同閨而居, 自幼受學, 深得旨訣. 其孝友之篤, 淵源之正, 散在諸賢集中. 四止堂金公, 以先祖之從子, 早承家庭之教, 蔚有成就. 此皆蜚英史乘, 輝映斯文, 顯有可據之迹, 然其在鄭重之道.”

73) 『佔畢齋先生門人錄』 『佔畢齋先生門人錄序』. “今按佔畢齋先生門人, 凡五十人而 先生之孫, 璞齋公手錄也.”

74) 『佔畢齋先生門人錄』 『凡例』. “諸賢行錄, 或有詳略之不同 而尊畏之道, 不敢妄自加損, 一衣璞齋公定本事.”



<그림 4> 『佔畢齋先生門人錄』 「序文」(左)과 「凡例」(右)

4.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刊行 이후의 狀況

이 장에서는 『첨간변과록』의 출현이 그 후에 간행된 임진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기사본과 임진본내의 연보와 부록 편차 차이를 살펴본 뒤 『첨간변과록』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 중 문인록 비교에 집중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간행 이후의 임진본 연보와 부록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첨간변과록』은 임진본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임진본의 간행사유는 송병선의 발문과 이현영의 지문(識文)을 통해 알려져 있다.

유집의 간판(刊板)이 오래되어 새긴 것이 많아 없어져서, 진신장보와 후손 계현·창현이 함께 모의하여 수완(修完)하였다. 일이 끝나자 하태운이 여러 사람

들의 뜻으로 나에게 뜻을 청하였다. 문집의 끝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이같이 글을 적는다.⁷⁵⁾

유집의 판본은 선생의 고향인 밀양 예림서원에 소장된 이래 사백여년의 사이에 판(板)을 새긴지 오래되어 닳아 없어진 것이 많았다. 그래서 지난 기사년에 도내 진신장보가 합의하여 중간(重刊)하였고, 또 문인을 추록하였으나, 첩원(撤院)한 이후부터 판목의 유실된 것이 또한 적지 않았다. 지금 다행히 여러 장보가 개연(慨然)히 여기고 힘을 다하여 수보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으니, 선현을 사모하고, 도를 지키는 정성이 또한 지금보다 많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⁷⁶⁾

이처럼 간판(刊板)에 완결(剋缺)된 것이 많고,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판본이 유실되어 여러 진신장보가 합의하여 새로이 『점필재집』을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진본과 기사본의 간행연도는 불과 23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 판목이 유실된 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진본은 기사본의 판목을 수보하여 사용하였고, 기사본에서 제외했던 『이준록』을 다시 보유(補遺)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집의 216판 중 13판이, 문집의 111판 중 20판이 보유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준록』의 66판 중 32판이 보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⁷⁾ 그리고 연보와 부록 부분은 보유가 아닌 개정(改定)이 이루어졌는데, 편차가 바뀌고,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

유독 다른 부분은 보유만 했으나, 연보와 부록 등에는 개정이 이뤄졌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침간변과록』과 연관한 것으로 추정한다.

『침간변과록』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감영에서 데감을 통해 명령을 받았고, 김취동의 발문에서 본 바와 같이 본손 측에서도 문집을 개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기사본과 임진본에

75) 『佔畢齋集』(壬辰本)『佔畢齋先生文集跋』宋秉瑢. “遺集刊板久而剋缺. 搢紳章甫與後孫啓鉉昌鉉合謀修完之, 功既訖河君台運以多士之意請余志, 其尾余不堪當而亦不敢辭謹爲之書如此.”

76) 『佔畢齋集』(壬辰本)『佔畢齋先生文集跋』李懿永. “遺集板本, 藏于先生梓鄉密陽之禮林而爾來四百餘年之間, 剝剝既久剋缺自多, 往在己巳, 道內搢紳章甫合議重刊, 又有門人追錄而自撤院以後板本之遺失者亦不少矣. 今又幸諸章甫爲之慨然而效力修補用壽厥傳. 其慕賢衛道之誠, 且未易多得於今日也. 曷不偉哉.”

77) 김광수(1991), 13 ; 서강선(2010), 48-49.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서 나타나는 차이를 연보와 부록에서 살펴보겠다.

<표 9> 기사본과 임진본의 연보, 부록 편차

	『佔畢齋集』(己巳本)	『佔畢齋集』(壬辰本)	
年譜	年譜	年譜	
	事蹟	事蹟	
	門人錄	門人錄	
	後序	後序	
	碑銘	碑銘	
	碣識	碣識	
	碣文	碣文	
	遺文	士禍錄	
	舊序		
	士禍錄		
國朝寶鑑			
跋(金昌鉉)			
附錄	謚狀	附遺文	盧公碑銘
	復謚疏		四美亭記
	禮林書院 請額疏	附錄	行狀
	禮曹回啓		祭文
	禮林書院 賜額諭祭文		墓祭文
	禮林書院上樑文		復謚疏
	講堂開基告由文		禮曹回啓
	禮林書院移安告由文		廟宇上樑文
	禮林書院常享祝文		請額疏
	禮林書院移建奉安文		賜額諭祭文
	祭文		常享祝文
	大洞墓祭文		院中立議
	立神道碑祭位板文	告位板文	
	謝本倅韓性源建先朝碑閣文	復謚改題告由文	
	冶廬祠宇址斜給文	禮成祭文	
	辨誣文	移安告由文	
	墓所立碑時制文	墓所立碑時祭文	
	復謚位版改題告由祭文	移建上樑文	
	禮成祭文	移建奉安文	
	禮林書院移建上樑文	講堂開基告由文	
	輿地勝覽	謝本倅韓性源建先朝碑閣文	
	先賢錄	舊序	
	東國名臣錄	跋(宋秉璋, 李鑑永)	
	行錄		
	四皓圖賦		
	附禮林書院事蹟		

위의 표는 기사본과 임진본에 연보와 부록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목차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기사본 연보의 「국조보감」과 김창현의 「발문」이 삭제되고, 「구서」와 「유문」이 임진본의 부록으로 이동하였고, 기사본의 부록에서 「시장」·「야로사우지사급문」·「변무문」·「여지승람」·「선현록」·「동국명신록」·「사호도부」가 삭제되고, 임진본의 부록에 「원중입의(院中立議)」와 송병선, 이현영의 발문이 첨가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원문을 대조해 본 결과 목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보와 부록의 본문에 기사본 연보의 「국조보감」이 임진본의 「예조회계(禮曹回啓)」 뒤에 별다른 제목 없이 본래 기사본에 기재되어 있던 양이 비해 산삭(刪削)된 채로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뒤에 다시 기사본 부록의 「선현록」과 「동국명신록」이 수록되어 있었다.

또, 임진본 부록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원중입의」는 기사본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사본 부록의 「부시소(復諡疏)」와 「예림서원(禮林書院) 청액소(請額疏)」 사이에 「서원입의(書院立議)」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결국 기사본에서 삭제된 것은 김창현의 발문과 「시장」·「야로사우지사급문」·「변무문」·「여지승람」·「사호도부」이며, 임진본에 첨가된 것은 발문뿐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김창현의 발문은 본래 김식이 지은 것으로, 김창현의 이름을 빌려서 기사본에 수록하였음을 3장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가 『국조보감』과 여러 선인들의 글을 살펴보고, 모아서 선인들의 일을 이어 할 수 있었으니, 미처 간행에 참고하지 못했던 것은 옛날에 문집을 간행할 때에 보감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널리 모으실 여가(餘暇)가 없으셨던 것인가? 아니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인가? 지금 또 사종숙(四從叔)인 식(植)이 함께 모의하여 해마다 침부하니, 비록 참망(僭妄)한 죄를 면하지 못하겠지만 또한 두찬(杜撰)한 것은 아니다.⁷⁸⁾

78) 『佔畢齋集』(己巳本) 「跋」. “謹考國朝寶鑑及諸先輩集錄, 擬以爲續貂之庭而未遑者也. 舊板時, 寶鑑未及宣布而然耶? 抑未暇廣授而然耶? 抑時有待而然耶? 今又四從叔植, 卽謀

위 글을 보면, 기사본의 연보와 부록에 실려 있는 「국조보감」을 비롯한 글들은 김식이 문집을 보완할 목적으로 첨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발문은 변과(辨破) 당시에 점필재 문도의 후예들에게도 읽혀졌는데, 그들은 ‘해마다 첨부한다’는 표현을 문인을 추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⁷⁹⁾ 이 때문에 기존에 김창현의 이름을 빌려서 작성한 발문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국조보감」 등의 책 구절을 첨부해 놓은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본을 간행하면서도 목록에 신지 못하고, 제목 없이 부록 「예조회계」 뒷부분에 수록하게 된 이유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점필재 문도의 후예들 측에서 변과 당시에 기사본의 문인록부터 김창현의 발문까지의 책판을 요구한 점⁸⁰⁾도 임진본의 연보에 해당 부분에 실어두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기사본에 김식이 첨부한 「사미정기」도 박형달과 연관된 글이기 때문에 문집에서 부록으로 옮겨져 실리게 되었을 것이다.⁸¹⁾

이처럼 김종직의 본손 측은 임진본을 간행하면서도 도동서원과의 약속은 물론 관에서 받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차와 목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미 「첨간변과록」이 간행되어, 유포된 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간행 이후의 임진본 문인록

다음으로는 각 판본의 문인록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비교하고, 그 차이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承被逐年添附. 雖未免僭妄之科而非杜撰者類也.”

79)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事實」. “且觀卷末新跋, 其曰逐年添附, 門錄何等重大 而今日之添附, 猶爲不足, 且將有後日之添附乎.”

80) 각주 52) 참조.

81) 임진본에서도 기사본의 시집과 문집 목판을 修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문집 1권 중간에 실려 있는 「답박상사형달서」는 삭제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나, 「사미당기」는 기사본을 간행하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 넣은 것이며, 본래 29판인 「風詠樓重營記」가 있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여 「사미당기」만 문집에서 삭제되어 부록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각 문인록의 내용 비교⁸²⁾

門人名	기유본 문인록 (1789)	기사본 문인록 (1869)	변과록 문인록 (1875)	임진본 문인록 (1892)
1 金孟性	金孟性. 字善源. 號止止堂. (中略) 早有重名. 慨然有志於世. 既屢科第. (後略)	金孟性. 字善源. 號止止堂. (中略) 早有重名. 慨然有志於世. 既屢科第. (後略)	金孟性. 字善源. 號止止堂. (中略) 早有重名. 慨然有志於世. 既屢科第. (後略)	金孟性. 字善源. 號止止堂. (中略) 早有重名. 慨然有志於世. 既屢科第. (後略)
2 鄭汝昌	同一			
3 金宏弼	同一			
4 曹偉	同一			
5 南孝溫	(前略) 燕山甲子. 追罪昭陵之疏. 禍及泉壤. 兪弘跋秋江集.	(前略) 燕山甲子. 追罪昭陵之疏. 禍及泉壤. 諡文清. 贈吏曹判書.	(前略) 燕山甲子. 追罪昭陵之疏. 禍及泉壤. 兪弘跋秋江集.	(前略) 燕山甲子. 追罪昭陵之疏. 禍及泉壤. 諡文清. 贈吏曹判書.
6 金駟孫	(前略) 或云. 李克墩爲全羅監司. 成廟之喪. 不進香京師. (中略) 贈都承旨. 宣以院額.	(前略) 或云. 李克墩爲全羅監司. 貞熹王后尹氏之喪. 不進香京師. (中略) 贈都承旨.	(前略) 或云. 李克墩爲全羅監司. 成廟之喪. 不進香京師. (中略) 贈都承旨. 宣以院額.	(前略) 或云. 李克墩爲全羅監司. 貞熹王后尹氏之喪. 不進香京師. (中略) 贈都承旨. 宣以院額.
7 (趙益貞)		수록되어 있음. (변과록 문인록과 내용 동일)	수록되어 있음. (기사본 문인록과 내용 동일)	
8 權五福	(前略) 及戊午禍起. 以先生門徒. 與濯纓同罹極禍.	(前略) 戊午禍起. 以先生門徒. 與濯纓同罹極禍.	(前略) 及戊午禍起. 以先生門徒. 與濯纓同罹極禍.	(前略) 及戊午禍起. 以先生門徒. 與濯纓同罹極禍.
9 兪好仁	(前略) 嗚呼. 以德望. 遇知聖明. (中略) 家于雷溪. 因以爲號. 有稿數卷.	(前略) 嗚呼. 以德望. 遇知聖明. (中略) 家于雷溪. 因以爲號.	(前略) 嗚呼. 以公德望. 遇知聖明. (中略) 家于雷溪. 因以爲號. 有稿數卷.	(前略) 嗚呼. 以德望. 遇知聖明. (中略) 家于雷溪. 因以爲號. 有稿數卷.
10 朴漢柱	同一			
11 李暻	同一			
12 李胄	同一			
13 李承彥	同一			
14 元槩	同一			

82) 팔가구현에 대한 부분은 기사본과 임진본 문인록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門人名	기유본 문인록 (1789)	기사본 문인록 (1869)	변과록 문인록 (1875)	임진본 문인록 (1892)
15	李鐵均	李鐵均, 字 士衡 , 星州人. 景泰庚午生. 乙酉, 進士. 丙辰, 登第. 官至大司成. 與金宏弼, 同遊學於先生之門.	李鐵均, 字 士衡 , 星州人. 景泰庚午生. 乙酉, 進士. 丙辰, 登第. 官至大司成. 與金宏弼, 同遊學於先生之門. [中廟朝甲戌十一月以其清白特命棺槨題給史錄清白] 號竹塢	李鐵均, 字 士衡 , 星州人. 景泰庚午生. 乙酉, 進士. 丙辰, 登第. 官至大司成. 與金宏弼, 同遊學於先生之門.	李鐵均, 字 士衡 , 星州人. 景泰庚午生. 乙酉, 進士. 丙辰, 登第. 官至大司成. 與金宏弼, 同遊學於先生之門. [中廟朝甲戌十一月以其清白特命棺槨題給史錄清白] 號竹塢
16	郭承華			同一	
17	姜訢			同一	
18	權景裕			同一	
19	李穆			同一	
20	姜景敍			同一	
21	李守恭			同一	
22	鄭希良	(前略) 嘗曰, 甲子之禍, 甚於戊午. 一日, 絕迹逃去. 不知所終. 有集行於世.	(전략) 嘗曰, 甲子之禍, 甚於戊午. 一日, 絕迹逃去. 不知所終. 有集行於世.	(前略) 嘗曰, 甲子之禍, 甚於戊午. 一日, 絕迹逃去. 不知所終. 有集行於世.	(前略) 嘗曰, 甲子之禍, 甚於戊午. 一日, 絕迹逃去. 不知所終. 有集行於世.
23	盧璋 (盧祖同)	盧祖同 , 字公緒, 好讀小學. (中略) 盧逸士璋, 固城人 . [按公改名璋, 不知何時緣何而改.] 己卯補錄. 遺逸 盧某 . (中略) 且有才行. 落第 . 累轉爲慶尙都事. 迺拜正郎. 後以降資還鄉里. 號墨齋 .	盧璋 , 字公緒. 初諱祖同, 光州人, 號墨齋 . 好讀小學. (中略) 盧逸士璋, 己卯補錄. 以遺逸持平 . (中略) 且有才行. 累轉爲慶尙都事. 迺拜正郎. 後以降資還鄉里. 終焉 .	盧祖同 , 字公緒. 好讀小學. (中略) 盧逸士璋, 固城人 . [按公改名璋, 不知何時緣何而改.] 己卯補錄. 遺逸 盧某 . (中略) 且有才行. 落第 . 累轉爲慶尙都事. 迺拜正郎. 後以降資還鄉里. 號墨齋 .	盧璋 , 字公緒. 初諱祖同, 光州人, 號墨齋 . 好讀小學. (中略) 盧逸士璋, 己卯補錄. 以遺逸持平 . (中略) 且有才行. 累轉爲慶尙都事. 迺拜正郎. 後以降資還鄉里. 終焉 .
24	姜希孟	姜希孟, 晉州人. 封晉山君. 諡文良.	姜希孟, 晉州人. 封晉山君. 諡文良. 號私淑齋 .	姜希孟, 晉州人. 封晉山君. 諡文良.	姜希孟, 晉州人. 封晉山君. 諡文良. 號私淑齋 .
25	任熙載			同一	
26	李繼孟			同一	
27	姜謙			同一	
28	洪翰	(前略) 中廟朝. 贈吏曹參判.	(前略) 中廟朝. 贈吏曹參判. [子彥弼官領相]	(前略) 中廟朝. 贈吏曹參判.	(前略) 中廟朝. 贈吏曹參判. [子彥弼官領相]

	門人名	기유본 문인록 (1789)	기사본 문인록 (1869)	변파록 문인록 (1875)	임진본 문인록 (1892)
29	茂豊副正 揚(李摠)	同一			
30	鄭承祖	同一			
31	姜伯珍	(前略) 出宰興海時. 刻行彝尊錄. 戊午. 杖流.	(前略) 出宰興海時. 刻行彝尊錄. 戊午. 杖流.	(前略) 出宰興海時. 刻行彝尊錄. 戊午. 杖 流. 號無名齋. 贈大 司諫.	(前略) 出宰興海時. 刻行彝尊錄. 戊午. 杖 流.
32	姜仲珍	康仲珍. 字[] [] (中 略) 仲珍刻行先生文 集七卷.	康仲珍. 字[] [] (中 略) 仲珍刻行先生文 集七卷.	康仲珍. 字子籟. (中 略) 仲珍刻行先生文 集七卷. 號臨鏡堂. 靖 國後官舍人.	康仲珍. 字[] [] (中 略) 仲珍刻行先生文 集七卷.
33	金訥	同一			
34	金用石	同一			
35	洪裕孫	同一			
36	李宗準	李宗準. 字仲鈞. (後略)	李宗準. 字仲鈞. (後略)	李宗準. 字仲勻. (後略)	李宗準. 字仲鈞. (後略)
37	崔溥	同一			
38	表沿沫	表沿沫. 字少游. (후략)	表沿沫. 字少游. (후략)	表沿沫. 字少游. (후략)	表沿沫. 字少游. (후략)
39	安遇	同一			
40	許磐	同一			
41	柳順汀	同一			
42	鄭世麟	同一			
43	禹善言	同一			
44	申永禧	同一			
45	孫孝祖	同一			
46	金驥孫	金驥孫. 字伯雲.	金驥孫. 字伯雲. 文 科佐郎. 號梅軒.	金驥孫. 字伯雲. 號 梅軒. 官佐郎.	金驥孫. 字伯雲. 文 科佐郎. 號梅軒.
47	姜渾	同一			
48	周允昌	同一			
49	方有寧	方有寧. 字太和. 官 至兵判.	方有寧. 字太和. 官 至兵判. 號每欺堂.	方有寧. 字太和. 官 至兵判.	方有寧. 字太和. 官 至兵判. 號每欺堂.
50	楊浚	同一			
7'	(趙益貞)	.	.	.	수록되어 있음. (기사본·변파록 문 인록과 내용 동일)

위의 표는 조익정과 기유본에 수록된 문인까지 총 50인에 대한 기록 중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 놓은 것이다. 위의 표를 봤을 때 기사본 문인록과 임진본 문인록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는 기유본의 책판을 기사본에서, 기사본 책판을 다시 임진본에서 수보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용에서의 차이는 기유본의 책판을 기사본에서 보판(補板)하거나 증보하며 내용을 덧붙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위의 표에서 6번 김일손 조(條)에서는 ‘宣以院額’ 4글자를 삭제했고, 9번 유호인 조에서는 ‘有稿數卷’ 4글자를 삭제했다. 그 이유는 6번과 9번 사이인 7번 조익정 조를 첨가하기 위해 기존의 행수(行數)를 줄이고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임진본은 7번 조익정 조를 삭제하고, 다시 그 행수를 채우고자 기존에 기사본에서 삭제했던 글자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기유본에서 임진본에 이르기까지 책판의 내용은 차츰 증보된 셈이다.

임진본 문인록은 기사본 문인록의 책판을 사용했으나, 기사본에서 김일손과 권오복의 사이에 기재되어 있던 조익정을 양준과 손중돈의 사이에 옮겨 기재하였다. 그래서 기유본에 수록된 문인록의 순서대로 김맹성(金孟性, 1437-1487)에서 양준(楊浚)까지 49인의 문인에 대해 기술한 뒤, ‘以上 庚辰錄’이란 소자쌍행(小字雙行)의 주석을 덧붙였다.⁸³⁾ 그리고 그 뒤에 조익정에서 민구령(閔九齡)까지 10인의 문인에 대해 기술한 뒤, 역시 소자쌍행으로 ‘以上 己巳錄’이란 주석을 덧붙였다.

기존에 기유본에 수록된 49명과 기사본에 새로 첨입된 10명을 구분하여 수록하여, 기존에 수록되어 있던 문인과 차이를 두었다. 기사본에 수록한 문인을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구분하여 수록하고, 주석을 덧붙임으로써 그 차이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변과록 문인록』은 별책으로 기존의 책판이 없이 새롭게 간행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구애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유본 문인

83) 『점필재집』 임진본 문인록 주석에 ‘以上 庚辰錄’이라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뒤의 ‘以上 己巳錄’이란 표현으로 미루어볼 때 경진년에 편찬된 책을 의미하는 듯하다. 아마도 이는 『점필재집』 경진본보다는 1580년에 편찬한 김뉴의 『佔畢齋先生年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앞에서 필자가 추측한 바가 합당하다면, 김뉴의 편찬본은 문인 50인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경진록이 아닌 기유록으로 지칭한 것이 더 옳은 표현이었을 것이다.

록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유본 문인록과 『변과록 문인록』이 같은 박재공 김뉴의 정본(定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유본 문인록이 박재공 정본을 교정하여 간행한 반면, 『변과록 문인록』은 그 밖에 『경현록(景賢錄)』을 참고하여⁸⁴⁾ 보완(補完)하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변과록 문인록』은 그 이전에 간행된 기사본 문인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⁸⁵⁾ 대개의 경우 먼저 간행된 기사본 문인록의 기록이 더 상세한데, 이를 참고하지 않고, 38번 표연말(表沿沫) 조의 경우는 같은 글자도 다르게 표기하며, 동일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는 46번 김기손(金驥孫) 조와 같이 위치를 바꿔서 수록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31번 강백진, 32번 강중진 조와 같이 기사본 문인록에 비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문인록은 점필재 문도의 후예들이 처음 문인록을 간행할 것을 기획했을 때 우려했던 바와 같이⁸⁶⁾ 박재공의 정본을 중심으로 2가지 계열로 나뉘게 된 것이다. 곧 문도 첨간에 대한 다툼이 『문인록』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5. 結 論

변과록은 어떠한 문헌이 편찬되었을 때,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해 반(反)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문헌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으로, 변무록(辨誣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84) 『佔畢齋先生門人錄』 「凡例」. “舊錄謄刊之際, 或有闕文誤字, 今依景賢錄讎校, 以完璞翁之舊事.”

85) 변과가 이루어졌음을 통해, 도동서원측에서 이미 기사본 문인록을 열람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사본 문인록을 열람하고도,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지 않으려고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46번의 김기손 조에서 그러한 경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86)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坪城康氏抵佳谷通文」. “若能更刊門錄, 別爲一帙 而傳之則 文集爲兩截矣. 是非不分矣.”

본고에서는 서적의 간행과 연관된 변무록 류의 서적 가운데 『첨필변과록』을 통해 『첨필재집』의 「문인록」 간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인 『첨필재집』의 여러 판본을 살펴보고, 특히 『첨필재집』에 문인록이 수록되는 기유본 이후에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기사본의 간행의 특이점이 대개 『첨필재집』 「문인록」에 새로운 문인을 첨가해 넣는 것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임진본이 간행되는 과정 중 삭제하였던 것으로 여겨졌던 기사본 연보의 「국조보감」과 부록의 「선현록」과 「동국명신록」이 실제로 임진본 부록에 제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수록되어 있었고, 임진본에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던 「서원입의」가 본래 기사본에 수록되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사본에서 삭제된 것은 연보내 김창현의 발문과 부록의 「시장」·「야로사우지사급문」·「변무문」·「여지승람」·「사호도부」 등이며, 임진본에 새롭게 첨가된 것은 발문뿐임을 알 수 있었다.

『첨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은 1869년에 첨필재 김종직의 본손인 김식이 『첨필재집』을 간행하던 과정에서 팔가구현의 문도를 새로이 첨입하여 간행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화할 때, 그 전말에 관계되는 통문, 서찰 그 밖의 여러 공문을 수록하여 1875년에 한훤당 김굉필의 14대손인 김취동 등이 편찬한 책이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변과록 서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형식인 축조변과로 이뤄졌음을 소개하였다. 결국 처음 도동서원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도동서원과 김식간의 다툼에서 더 나아가 첨필재 문인의 후예를 비롯한 그 문인들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의 중의를 모아 논의하는 규모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사본에 첨필재 종손인 김창현의 이름으로 수록된 발문이 사실은 김식이 작성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 후 후예 측에서 기사본의 책판 중 일부를 자기 측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이 진척되지 않자, 후예측은 판에 정문을 올려 예전에 간행한 문집 책판을 파기하고, 새로 간행하라는 명령을 얻어, 결국 첨필재 종손측에서 개간(改刊)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된다.

또 『첨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과 함께 『첨필재선생문인록』도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수록 문인과 여러 판본에 『첨필재집』에 수록된 「문인록」을

대조하여, 처음 『문인록』을 수록하여 간행한 기유본에 49인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박재공이 작성한 정본에는 50인이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점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의 간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임진본의 간행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존에 기간이 오래되어 판목이 닳았고, 서원철폐령으로 유실된 판목이 많아 임진본이 간행되었다는 기존에 알려진 간행사유에 대해, 『첨간변과록』도 그 간행 사유 중 하나로 추정하여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집과 문집은 기사본의 책판을 수보하여 간행하였으나, 연보와 부록 부분의 편차는 대다수 바뀌었는데, 이는 『첨간변과록』에서 문제시되었던 김창현의 발문이 삭제된 것과 문인 첨가의 바탕 자료로 간주된 자료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부록으로 옮겨 수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기사본에 첨입된 『사미정기』 역시 팔가구현의 인물 중 한 명인 박형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록의 유문으로 옮겨 수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유본, 기사본, 임진본, 『점필재김선생문인록』 판본의 문인록을 대조해 본 결과 기사본의 책판은 기유본을, 임진본의 책판은 기사본을 수보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관계가 컸고, ‘조익정’ 항목의 첨가·삭제를 통해 행자수를 맞추기 위해 그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점필재김선생문인록』은 여러 『점필재집』의 판본과는 달리 박재공의 정본과 『경현록』을 참고하여 간행했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된 문인록과 계열을 달리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문도 첨간에 대한 다툼이 『문인록』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러 변무록 류의 서적 중 『점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을 소개하여, 그 간행에 관련한 일련과정과 임진본 『점필재집』 간행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점필재 문도 첨간 사건의 시비(是非)를 가리기보다는 변과록의 등장과 그에 대한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김식의 문도 첨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고찰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는 『점필재김선생문도첨간변과록』에 대응하는 점필재 종손 집안 입장이 담긴 문헌이나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추후의 과제로 진행할 것이다.

이 밖에도 서적의 간행이나 잘못된 기록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과 관련된 번무록 류의 책으로 『진양지변무통문(晉陽誌辨誣通文)』이나 『진보이씨상계과과보변과록(眞寶李氏上溪派派譜辨破錄)』, 『후조당가장변과록(後凋堂家狀辨破錄)』, 『여사목은본전변과록(麗史牧隱本傳辨破錄)』, 『국조인물지변과록(國朝人物志辨破錄)』, 『국조인물유오조변과록(國朝人物有誤條辨錄)』, 『도산금문제현록변정(陶山及門諸賢錄辨訂)』, 『학용요의변과록(學庸要義下破錄)』, 『학용요의변정록(學庸要義下正錄)』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또한 한국 서지학의 한 분야로서 관심 받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道東書院 編.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 규장각 소장본(奎 6800).
- 道東書院 編. 『佔畢齋先生門人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513-7).
- 朝鮮王朝實錄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金宗直 著, 啓明漢文學硏究會 編. 『佔畢齋先生全書』. 서울: 학민문화사, 1995.
- 金宗直 著, 韓國文集編纂委員會 編. 『佔畢齋文集』. 서울: 景仁文化社, 1993.
- 民族文化推進會 編.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12: 佔畢齋集』.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 서울대학교도서관 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3』.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編. 『李朝名賢集: 佔畢齋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73.
- 임정기. 『국역 점필재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知識産業社, 1989.
- 권석창. “朝鮮時代 辨誣錄 硏究.”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 김광수. “佔畢齋先生文集 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김광수. “점필재선생문집연구.” 『漢文學研究』 제7호(1991. 8). 51-113.
- 김운수. “『점필재집』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2). 303-327.
- 서강선. “점필재집 제판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0.
- 서강선. “점필재 김종직 연구의 회고와 전망.” 『코키코』 제72호(2012. 8). 139-168.
- 서강선. “『점필재집』의 판본 계통 연구.”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253-283.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 제9집(2004. 2). 367-402.
- 황위주. “점필재 김종직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전망.” 『東洋漢文學研究』 제31집(2010. 8). 5-27.